

# 최근 1년 자연재해 피해 100억원 육박

### 고온·집중호우·일조량 부족·한파 등 기후영향 9회 발생 언피해·벌마늘·메밀 수밭아·레드향 열과 등 농작물 수산 피해액 94억3400만원... 도, 복구비용 66억3200만원 지원

지난 1년간 고온과 폭염, 집중호우, 일조량 부족,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만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온과 호우로 인한 벌마늘, 메밀 수밭아와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가 잇따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제주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9회에 걸쳐 94억34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66억3200만원이 투입됐다.

발생 순서별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온,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양파와 쪽파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는 농약대(양파 50만3535㎡ 등)와 대파비(양파 1만1401㎡)로 재난지원금 1억2700만원을 지원했다.

또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잦은 비날씨에 의한 일조량 부족으로 감귤(178만7724㎡)을 비롯한 과수(15만4692㎡), 딸기(11만5863㎡), 방울토마토(4만3274㎡) 등의 피해가 컸다. 고추와 깻잎, 상추, 블루베리, 엽경채, 수박, 오이,

화훼류 등의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규모도 적잖았다. 이와 관련 재난지원금 6억330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1월 22-24일 집중된 대설한파 피해로 채소(597만5862㎡), 무(128만9935㎡), 꿀벌(5158군)과 말(6마리), 우사 등이 피해를 입으며 피해액이 31억1100만원으로 컸다. 이에 재난 지원금 23억9800만원이 투입됐다.

이어 2-3월에는 고온, 강우, 일조량 부족 현상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농약대(마늘 542만9370㎡)와 대파비(마늘 2만6267㎡)로 14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5월 4-6일에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다. 메밀(201만3756㎡)과 기장(160만310㎡)을 비롯해

감자, 보리, 배추 등 대부분의 농작물이 피해가 잇따랐다. 피해액은 16억7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비 등 지원한 복구비는 12억9600만원이다.

이후에도 6월에 집중된 호우로 주박이 침수됐고, 고온까지 겹치면서 메밀(195만8180㎡) 수밭아 현상도 심화됐다. 피해액은 6억8900만원이며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3억7800만원이다.

아울러 7-9월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귤과 레드향(73만3972㎡) 열과 피해를 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2명의 인명 피해와 전복(7만8310줄) 피해도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양식장의 피해도 많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뽕뽕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라”

### 제주시, 골목 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지속 서귀포시, 공직자 중심 ‘골목 식당 가는 날’ 운영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한 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골목 상권 소상공인, 전통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7일 제주시에서 따르면 올해 ‘골목 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를 활용해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권별 소비 진작 프로모션, 소상공인 디지털 대전환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제주시 전역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벌였다.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골목 상권이 지원의 사각지대라는 판단

으로 2023년 대비 35억 넘게 늘었다. 제주시는 “최근 국내 정세 불안,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1월 6일까지 서귀포항도일시장, 명동로상점가 등 민생 경제 현장을 돌며 상인과 소비자들을 만났다.

오순문 시장은 “계속되는 불경기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전통 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이 경쟁력을 갖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소비 촉진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1월 한 달간 주 2회(화·목) 골목 상권을 찾아 식사하고 영수증 리뷰를 남기는 ‘화목한 골목 식당 가는 날’을 운영한다. 1청사 구내식당도 처음으로 1월 중 두 차례 휴무를 시행해 공직자들의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막바지 양배추 수확 7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농민들이 막바지 양배추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 소규모농가·청년농업인 도,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비 7억원을 투입, 도내 소규모농가와 청년농업인 3500농가를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은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백금탁기자

막바지 양배추 수확 7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농민들이 막바지 양배추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 탐라영재관·탐라하우스 입주학생 243명 모집 도, 17일까지 모집... 심사 거쳐 2월 4일 대상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2025년도 탐라영재관·탐라하우스 입주학생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7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에 모집하는 입주학생은 탐라영재관 228명(남 76, 여 152), 탐라하우스 15명(남 7, 여 8)이다.

희망자는 제주도탐라영재관 홈페이지(<https://genius.jpdc.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자격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선발공고일 기준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도에 주민등록된 자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30%)과 생활정도(70%)로, 이를 합산한 결과에 가점 및 감점 요인이 반영된다.

탐라영재관의 기숙사비는 식비 포함해 한 달에 15만원이며 입사비(미반환)는 5만원이다.

탐라하우스의 기숙사비는 한 달에 1인실 30만원, 2인실 20만원이며 보증금(반환)은 40만원이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은 입주학생이 별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입주 대상자는 2월 4일 발표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도, 올해 교통분야 2776억 투자한다

###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교통편의 제공 집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교통분야에 2776억원을 투입,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 대중교통 디지털 대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교통 분야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 >교통복지 확대와 편의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 제고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체계 구축 >교통분야 디지털 대전환 >제주형 주차정책 수립 및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교통복지 확대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 교통복지 지원에 4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무료 탑승 혜택을 확대하고, 어르신행복택시에

135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운영 등에 129억원을 배정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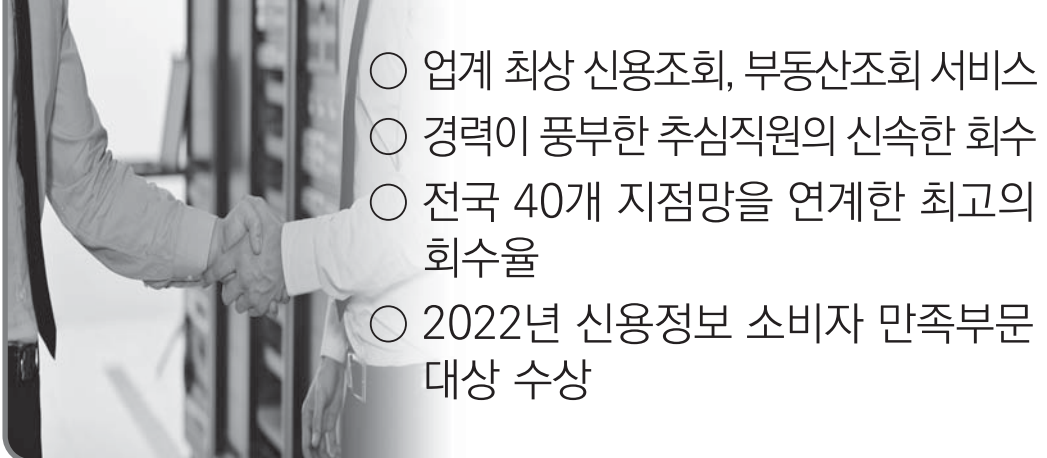
이와 함께 도는 64억원을 투자해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사업 추진에 따라 제주시 서광로 구간을 오는 5월부터 본격 개통한다. 섬식정류장 운영에 따른 양문형 저상버스 100대를 도입(지난해 도입 72대 포함)해 빠른 이동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교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시스템(3억원)과 제주공항 택시 스마트시스템(9000만원)을 구축한다. 백금탁기자

#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 대상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大賞